

#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 회고와 새로운 모색

A Historical Retrospect on Major Themes of  
Christian Economy and New Grope

김홍섭

- I. 머리말
- II. 고대와 중세의 기독교적 경제관
  1. 고대 교회의 경제에 대한 시각
  2.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제관
- III.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경제관
  1. 종교개혁의 경제적 배경
  2. 루터의 경제·직업관
  3. 칼빈의 경제·직업관
  4. 막스·베버의 경제관
- IV. 새로운 기독교적 경제활동 방향의 모색
  1. 기독교적 경제관의 변화
  2. 새로운 기독교적 경제활동 방향의 모색
- V. 맺는말

## Abstract

Christianity has influenced the life and way of thinking of western society for a long time. The viewpoints of Christianity on economy have changed as the society and lifestyle have converted. In the beginning of the church, the wealth and possession were not so importantly evaluated because Jesus criticized the wealth and Apostle Paul also underestimated it. In the medieval Age, asceticism and monasticism were so prevalent that Christianity did not underline the wealth and possession, and classified labors into the holy one and the secular one.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introduced new concept 'calling' or 'vocatio' and Max weber developed the concept, critically influencing the introduction of Capitalism. In this paper, major viewpoints and themes of christian economy were reviewed and several directions were suggested to improve and rationalize the christian economy.

## I. 머리말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서구의 사상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초대 교회의 생성은 물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경제와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 기독교 사상은 그리스 철학을 접목시키기도 하였으며 로마 시대의 박해와 국교로의 인정, 그리고 중세의 교부철학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초대 교부들은 경제와 부의 축적과 노동에 대해 확립된 견해들을 견지하고 있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소유와 부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대와 중세의 경제력과 생산의 핵심주체는 노예로 대표되는 하부 계층

의 사람들이었으나 제도와 신분의 조건으로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 중세의 장원경제체제는 농민전쟁과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으로 변화하게 된다. 직업에 대하여도 성직자와 세속의 직업으로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던 생각들은 루터에 와서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는 거대한 기독교의 경제와 직업 또는 노동에 대한 주요 견해와 생각의 기본 흐름들을 고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과 베버(M. Weber)를 중심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조감해 보고 오늘날의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제시될 수 있는 기독교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고대와 중세의 기독교적 경제관

### 1. 초대 교회와 경제 생활 인식

#### 1) 초대 교회의 경제관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부에 대한 엄한 경고와 사도 바울의 부에 대한 상 대화로 소유와 부에 대한 집착과 중요성이 약했다. 초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물질과 부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행 2:42 이하, 행 4:32 이하). 이러한 초대 교회의 부에 대한 엄격한 입장은 종말론적 기대와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된다. 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은 속사도 시대(Apostolic Fathers)의 문헌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1)</sup> 2세기의 교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긴급성이 점차 사라져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서 세상의 소유에 대한 입장이 급격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금욕주의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방종교들의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그리스의

1) Didache, I, 5f ; 4,5-6 ; Pseudoklementinen II, 29 ; Barnabas 19, P.8f Hermas, 6,7 ; Polikarp 4, 1.

철학사상, 특히 플라톤적 금욕주의가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역에 따라서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속사도 시대의 소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나 바울의 입장과 함께 외래사상들의 결합에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3세기의 초대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협력과 상호부조를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기독교인들 간의 경제적 연대는 신앙의 결속을 강화하였다.<sup>2)</sup>

초대교부들(Kirchenvater)들에게도 빈곤과 금욕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와 부가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 제국의 법의 지배와 일치하지 않았고 맘몬은 우상숭배의 유혹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원 메시지의 담지자들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있다.

동방 교회에서는 경제적 공동체의 삶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적 경제질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방 교회에서도 소유에 있어 만민의 평등을 지적하고 있다. 암브로시우스(Ambrosius)는 “자연은 만물을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제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식물을 취하고 땅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소유가 되게 할 목적으로 모든 산물을 내게 한다. 이렇게 자연은 만인을 위한 공동의 소유권을 형성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찬탈에서 사유재산권이 등장한다.”<sup>3)</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사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물건으로서 사유재산을 소유한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어느 정도 대변한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사유재산제가 본래적으로는 불법적이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된 성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

2) Gregor von Naxianx, MPG 35, 889ff.

3) Ambrosius, PL, 16, 67.

## 2) 고대 교회의 노동관

히브리인들의 노동관은 구약성서와 중간기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노동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제4계명(출 20:9, 신 5:13)에서 신성한 의무로서 부과되었다. 또한 잠언 22장 2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앞에 설 것이요 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함을 통해서 근면하고 숙련된 노동자에 대하여 고도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 중간시대와 신약시대의 서기관이나 랍비들은 그 시대 민중에게 극히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지방의 어른 대접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육체노동을 가장 존경할만한 것으로 간주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로서 주장했다. 실제로 탈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기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그를 강도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은 노동자체가 노동자를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높이 평가 된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고대의 다른 사회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대접 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간주되는 노예일지라도 인권이 완전히 무시된 존재가 아니었고 일정기간 동안만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노동이란 노예가 하는 것이고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플라톤은 이상향을 설명하는 가운데 “장인들은 이상향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위 “완전한 인간”도 노동으로 손을 더럽히지 않는 인간을 의미하였다. 아테네 시민, 특히 그가 철학자라면 그는 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동이란, 떠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자신을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피해야 할 천한 일이기 때문이다.<sup>4)</sup> 즉 헬라인들은 영육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여 영을 육보다 더 높

4) 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37, p. 386.

은 자리에 두어 정신적 노동을 더욱 우월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육체노동은 인간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 데서 나온 사상이다.<sup>5)</sup>

반면에 보다 새로운 견해도 없지 않다. 기원 전 2세기에 살았던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파나이티오스(Panaitios)는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물은 인간노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친 바 있으며, 키케로(Cicero)도 자신의 저서 「의무론」(De officiis)에서 파나이티오스의 견해를 반영하여 자연이 인간의 생활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 변형되어야 한다고 파악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일련의 실례들을 언급하고 있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들의 경우 신도층은 로마제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나왔다. 그들은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또는 하층계급의 자유민들이거나 다양한 국적을 지닌 비로마인들이었다. 게다가 재림의 기대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 교인들은 세속적 직무들을 매우 소홀히 여겨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비로마화해 가는 추세와 더불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등장하면서 노예해방은 일상화되었다. 결국 초기제국에서 노예제도의 여건이 점차 개선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노예와 하층계급의 비노예들 사이에서 명확한 계급의식이 출현될 수가 없었다.

이와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노동에 대한 견해는 헬라문화의 영향하에서 다분히 계층구분을 통해 천시되어 왔으나 다시금 유대적 사고로 복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2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경제관

### 1) 중세 가톨릭의 경제사상

고대 교회의 경제관은 게르만 사회의 공동경제사회 특성과 결합하게 된

5) Henry R. Van Til,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영음사, 서울, 1972, p. 318.

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사회주의적 전통들은 알비겐스파(Albigenser) 또는 프란시스칸(Franciscan)의 사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전통은 후에 초기 종교개혁자인 후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세의 대표적인 경제적 사조의 하나로 성 프란시스에 의해 주도된 수도원 운동을 들 수 있다. 프란시스는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유재산제도를 악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여 이것의 폐지를 주장하게 된다. 프란시스칸적 경제관은 사적 소유를 죄의 결과로 확신하며 사적 소유를 강하게 비판한다.

중세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완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스콜라 철학을 완성하였으며 재산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보고 기독교의 교리 안에서 철학적으로 입증하게 된다. 그는 사유재산의 정당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기독교 신학 안에서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그는 “재산의 공동 소유”(communis omnium possessio)를 정한 그라치안의 칙령은 인간이 무죄 상태(status innocentiae)에서는 실현가능한 것이나 원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간의 본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유재산의 합리적인 사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연권에 속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다만 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만은 개인의 재산도 “공동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 중세의 노동관

헬라의 전통적 사상인 영·육 이원론은 언제나 정신노동을 육체노동보다 우월시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중세 기독교는 금욕주의와 수도원주의를 발전시켜 노동에 있어서도 성숙의 구별을 짓게 하였다. 중세의 카톨릭은 인간의 생활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윤리체계를 형성시켰다.

중세의 학자들은 직접적인 성서의 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철학에

6) Thomas von Aquinas, *Summa Theologiae*, II/2, 66 ; *Handbuch der Christlichen Ethik*, Bd. 2, 375f.

의해서 노동의 신화에 대한 기초를 놓는 것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색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천시사상은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때문이며, 노동이 죄에 대한 “저주”라는 사상을 강조한 까닭이기도 하였다. 정치가나 승려의 행위 등은 행위 속에 목적,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해 민중의 노동은 타율적 소재의존적(素材依存的)이어서 노동하는 인간 속에 그 노동의 목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세질서 체제 내에서 노동관은 상층계급으로부터 주어진 일체의 가치관과 부합되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III.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경제관

#### 1. 종교개혁의 경제적 배경

종교개혁 당시는 경제적으로 장원경제체제가 몰러가고 서서히 신흥 상업 자본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sup>7)</sup> 이는 곧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에 기반을 둔 단순경제체제가 몰러가고 화폐경제체제가 등장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은 부농층과 빈농층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는 빈약한 농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도시의 부유한 상공인들의 등장으로 인해 농민들은 더더욱 허탈감에 빠졌다. 상품 경제의 발전 결과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또한 농민들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영주들이 로마법을 적용시켜 지방법을 개정한 당시의 법은 농민들의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알맞았다. 또한 농노를 소유주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로마법의 도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농민 자신들의 신분에 관한 우려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sup>8)</sup>

7) 홍치모,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서울, 1977, p. 71.



농민들은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 나름대로 봉건영주들에 대한 규탄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봉건영주들도 봉건사회의 해체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그런 농민들의 움직임을 묵과할 리가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억압이나 수탈수단을 강구하여 농민들에 대한 압제를 쉬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들의 항거와 사회개혁에 대한 열기는 그칠 줄을 몰라 루터의 본격적인 등장이 있기 약 30년 전부터서만해도 독일에는 최소한 대소 10여 차례의 농민반란이 일어났던 것이다.<sup>9)</sup>

## 2 루터의 경제·직업관

### 1) 루터와 직업소명

소명(Vocatio)이라는 말은 성년기 루터가 중심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주제이며 종교개혁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소명론은 수도원적 이상이 내부에서부터 벌써 전복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515년에서 1516년까지 행한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서 우리는 사회 안에서의 모든 신분은 그것의 특정한 요구를 부과하고 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대신 거룩한 삶을 산 어떤 사람의 전설을 모방한다면 그 요구가 등한시된다는 것을 직접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명’이라는 라틴어 ‘Vocatio’와 독일어 ‘Beruf’가 루터의 저작에서 좀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소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말은 1522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결정적으로 반대한 것은 1521년에 발표된 “수도원의 맹세에 관하여”(De votis monasticis)에서 나타난다.

인간 자신의 죄는 하늘에서 심판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거기에는 위치나

8) R. Friedental, 김형석 역, 「마르틴 루터의 생애」, 삼성미술문화재단, 서울, 1979, pp. 344-345.

9) F. Russel, 이민호 역, 「독일소사」(A concise History of Germany), 삼성미술문화재단, 서울, 1981, p. 130.

직책이나 소명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관한 질문만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인격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의 영역과 좀더 비인격적인 소명의 지배가 강한 공직(Office)의 영역을 분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곧 루터의 용어와 고용 인간의 관계인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소명이다.

지상의 영역에서 인간은 항상 “관계 가운데”(in relation), 즉 항상 다른 사람과 매인 가운데 서 있다. “모든 위치는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인간은 지상에서,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직책”을 이행한다. 이곳에서 창조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다. 윤리적인 대행자가 되는 것은 바로 생활의 “위치”(Station) 자체이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법을 통하여 행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2) 루터의 경제·직업관

루터에게 있어서 소명의식은 그가 직업의 다양성과 그 가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의식이었다.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이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던 종교개혁 이전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던 것이, 개혁과 함께 직업의 차이에 바탕한 데서 이루어진 수도원 제도와 그 삶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직업평등관이 그의 개혁사상의 부분을 이루게 된 것이다. 루터는 노동을 “천직”(Beruf)으로 설명하여 사람의 일상생활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민주주의 사상에 근원적인 감화를 제공하였다.<sup>10)</sup>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이행되어야 할 신성한 임무를 동반하며 가치상에 있어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직책과 신분의 다양성에서 그 가치를 선·후 일렬선상에 세우고 직업의 가치를 판정할 심판자는 누구도 없다. 모든 직책은 두 상대, 즉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응답의 책무를 가진 데서 기인한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협력자의 의미로, 그리고 자기 이웃을 위해서는 봉사와 사랑의 신성한 의무를 가졌다고 믿는

10) Georgia Harkness, 김재준 역, 「기독교 윤리학」,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62, p. 208.

데서 루터의 직업의식은 단순히 경제적 의식이나 윤리적 요청을 달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루터는 외부적으로 인간사회에서의 많은 직업의 의견차이를 인정한다. 그러한 의견적 차이는 외부상 다른 “마스크”에 불과할 뿐 다양한 그 이면에는 한 목적과 의미를 위해 조화와 통일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루터의 경제관은 사회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의 소명은 경제적 맥락에서 언급되어질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선과 무상의 은혜를 받은 빛진자로서 우리 이웃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자신의 신적 소명의 응답을 경제적 윤리에서 찾고자 하였고 이것은 그의 소명의식의 한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의 삶과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경제적 책임감을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Vocare)에 의한 것이며 평생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루터는 만인사제설의 입장에서 세속 직업의 이행도 성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의 일부분이며 개인의 윤리적 실천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해석함으로써, 중세 카톨릭의 복음적 명령(Praecepta evangelica)과 복음적 권고(Consilia evangelica)를 구별하는 이중적 윤리 관념을 타파하였다. 이로써 세속 직업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천직을 수행함으로써 성직자 못지 않은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신흥 자본주의에 유리한 기풍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구태의연한 전통주의자였다. 젊어서는 바울적인 종말론적 무관심을 견지했고, 종교개혁 운동으로 직업노동의 신학적 의의를 재발견한 후에도 농민전쟁을 겪으면서 기존 질서에 안주하는 편을 택하였다. 그 결과 말년의 루터는 세속권력과 현재의 직업에 순종하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기능적 사회관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베버에게 있어서 루터는 자본주의 정신 성립을 위한 문제 제기자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종교 개혁자로서 칼빈은 루터의 후예였다.

### 3. 칼빈의 경제 · 직업관

#### 1) 칼빈의 개혁과 평가

일부 학자들은 종교개혁 그 중에서도 특히 칼빈파의 개혁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막스 베버는 칼빈주의의 이론적인 영향이 자본주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논지를 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자본주의는 종교개혁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이므로 근대자본주의 발전을 야기하는 데는 다른 요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루터는 착취자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으나 급진적인 경제의 변혁은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루터 공동체의 사유재산제와 재산의 공유에 대한 주장에 대해 고심하면서 집사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를 제시하였다. 칼빈은 루터의 공동체를 비판하면서 사유재산을 옹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한 자의 횡포를 비난하고 있었다.

트론틀취(Ernst Troeltsch)는 칼빈주의가 기독교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고<sup>1)</sup> 워커(G. S. M. Walker)는 칼빈이 사회복지에 대한 그의 관심에 의해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선구자였다<sup>2)</sup>고 지적했다. 루터가 농업을 증진시키고 상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건한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농업을 강조하고 상업을 경시했다면, 칼빈은 상공업을 천부적인 직업으로 보았다. 그리고 산업자금의 증식성을 인정하면서 “농지를 빌려주고 지대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고, 돈을 빌려주고 그 열매를 받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말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사업자금에 대한 적절한 이자를 인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성장의 배경을 마련했다<sup>3)</sup>는 것이다.

1)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III, trans. Olive Wy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31, p. 727.

2) G. S. M Walker, "Calvin and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XVI, 1963, p. 388.

3) W. 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 John Calvin and His Social-economic Impact*, John Knox Press, Richmand, Virginia, 1971, p. 92.

루터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발전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던 반면에, 칼빈은 장원중심의 농업사회에서 도시중심의 산업사회로 이행하던 과도기에 나타나서 상공업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아울러 산업사회에서 초래되는 부의 편재현상을 직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사회의 새로운 예언자적 소임을 감당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개혁으로 도시사회는 더욱 자본주의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반작용으로 농촌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카톨릭측과 개신교측 모두 압력을 가했다.

## 2) 칼빈의 경제·직업관

베버는 칼빈의 예정론이 두 가지 윤리적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 하나는 직업윤리로서, 루터의 “직업안에서(in vocatione) 안주하라”는 소극적 자세가 “직업으로써(per vocationem) 하나님께 영광돌리라”는(직업의 자유로운 변형을 허용) 적극적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때 더 많은 영리를 획득함으로써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자연히 직업윤리는 합리적, 조직적, 비인격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 하나는 금욕주의로서, 철저히 자신의 안이, 욕망, 쾌락을 부인하는 극기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의 저서에서 소명(Vocatio)은 거의 신앙적 부르심으로 사용되었고, 세속 직업에 사용된 경우는 극히 희소했다. 칼빈의 고린도전서(7:20,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에 대한 주해는 그 희소한 사례의 하나이다. 여기서 그는

“성서에서 소명은 합법적인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 바울의 말은 직업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게 아니다. 단지 직업을 이유없이 그냥 바꾸지는 말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자신이 평온한 심경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 요소를 피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중세적, 그리고 루터의 기능주의적 직업관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천직을 존중하도록 명령 하신다. ...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에서 빚어지는 일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은 각 사람이 각각 상이한 삶의 분야에서 자신의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같은 삶의 분야를 천직(vocation) 내 지는 소명(calling)으로 호칭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정해진 한계선을 성급하게 침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개개인의 직업은 주님이 배정하신 직 위(post)인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아퀴나스나 루터와 동일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칼빈의 직업윤리는 루터의 Beruf의 이해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었다. 다만 그가 교역이 왕성한 소도시에서 사역하였으므로, 직업 변경에 관해 기존의 정체된 논리만을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직업변경의 판단기준을 영리성에 두거나 직업노동을 매개로(per vocationem) 선택을 확인하려 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 4. 막스·베버의 경제관

##### 1) 베버의 경제관 개요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의 규명에 있어서 칼비니즘(Calvinism)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와 도교의 연구에도 오랜 시일을 소비하기도 했다. 베버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입각한 가치판단이 사회과학의 영역에 개입되게 되면 그 과학은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다. 베버는 서구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여건으로서 법치와 전문적 관리제도, 국가시민권을 수반하는 근대적 국가의 존재 및 생활의 합리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sup>14)</sup> 자본주의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합리적인 계속적

기업, 합리적인 기업, 합리적인 기술, 합리적인 법률이며 여기에 덧붙여 합리적인 정신, 생계의 합리화, 합리적인 경제이념 등으로 압축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베버는 자본주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sup>15)</sup> 첫째의 구분은 천연적 자본주의(*Paria-Kapitalismus*)이다. 베버에 의하면 교환이 성립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한 곳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 것이어서 상업을 한다든지, 고리대 또는 양국 화폐의 외국환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등, 그 형태는 구구하다. 이러한 상인적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불렀다. 두번째의 구분은 정치적 자본주의로서 화폐영리의 기회를 전쟁, 정복, 정치적 권력 등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자본주의 형태인데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적, 식민지적 자본주의, 모험적 자본주의, 재정적 자본주의로 구분한다. 16) 이러한 천민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본주의는 모두 유통부문 또는 폭력의 직접적 행사인 전쟁, 약탈, 해적행위, 정치적 권력에 의한 재정으로서의 약탈, 착취에 의하여 영리를 얻고자 하므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로 볼 때, 영리획득의 행위는 *ethos*, 즉 직업윤리화되어야 한다.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영리를 얻는 것을 윤리적 의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자본주의의 정신이라 일컫는다. 자본주의 정신은 전통주의와는 달리 영리추구가 끊임없이 결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규율, 훈련에 의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무절제하게 충동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이에 반하는 것이다.

## 2)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정신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분류하여 ①캘비니즘(*Calvinism*) ②경건주의(*Pietis*) ③감리교(*Methodist*) ④침례교파(*Baptist*)로 나누고 그 각각의 교리

14) Max Weber, 조기준 역, 『사회경제사』(*Wirtschaftsgeschichte*), 삼성출판사, 서울, 1986, p. 293.

15) *Ibid.*, p. 19.

16) *Ibid.*, p. 368.

에서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을 구하고 있으나, 특히 칼비니즘에서 찾고 있다.<sup>17)</sup>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그대로 연결되어 근대자본주의, 즉 합리주의적 경영과 자유노동을 가진 시민적 산업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추궁하였다. 합리적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조직은 합법적 이윤을 직업(사명)으로서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심정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16, 17세기의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비니즘의 금욕적 합리주의에서 유래하였다. 이와같이 금욕적으로 생활태도를 합리화하고자 한 것이 경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조직적인 자기심사(Systematische Selbstkontrolle), 끊임없는 활동, 합리적인 생활의 규율은 생산과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만큼 신의 은총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철저한 소비의 절약을 요구한다고 베버는 말했다.<sup>18)</sup>

이러한 금욕적인 경제활동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신에게서 일시적으로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 낭비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활동생산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을 금욕적으로 절약하게 됨으로써 자본이 형성된다. 이 자본은 산업자본화하여 자본을 끊임없이 증가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주의할 것은 칼비니즘의 금욕적 직업윤리가 직접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금욕적 직업윤리를 실천하는 교도들의 종교적 관심, 또 마음의 태도가 그들의 행위를 자본주의 정신으로 다가서게 했다고 베버는 본 것이다. 즉 칼비니즘의 직업윤리가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데 협력함으로써 자기의 교제를 확증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끊임없이 영리를 추구하여 얻은 이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같이 칼비니즘의 직업윤리에서 자본

17) Max Weber, 심희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을유교보, 서울, 1986, p. 108.

18) 최문환, op. cit., p. 34.



주의 정신이 형성되고 자본주의 정신에 의하여 서구에서만 독특히 합리적, 산업적 자본주의가 일어났다고 베버는 보았다.

전통주의자와는 달리 기업가나 관리자 또는 임금노동자로서 근대자본주의에 참여한 사람은 합리적인 경제적 정신의 소유자였다. 이 합리적인 경제적 소유자는 엄격한 노동, 보다 많은 생산성과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의 개발, 개인적 소비의 절약, 경제생활에서의 집단적 책임이 아닌 개인적 책임을 윤리로 삼는 사람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합리주의와 개신교와의 관련성을 논하면서 베버는 소명(Calling)의 교리가 노동과 검약을 새롭게 평가하는 본질적 기반이 되었고 예전의 교리가 그것을 경제생활에 나타나게 하는 심리적 동기부여를 낳았다고 주장하였다.

### 3) 베버이론의 영향과 비판

베버의 경제사상 및 이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다. 특히 그의 합리성의 개념 도출 및 방법론에 대한 견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상, 사회과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서구문명에 대하여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 심각하고도 중요한 자기반성이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관료제 이론이다.<sup>19)</sup>

베버의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비판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마르크스보다 50년 후에 태어난 베버는 그 당시에 서구를 휩쓸고 있던 유물사관을 비판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였다. 베버의 이 비판은 1890년대의 세대에서부터 나온 모든 마르크스주의 비판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하고 그 영역이 넓은 것이었다.<sup>21)</sup> 이러한 비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역사발전의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을 증명함으로써 마르크스이론을 상대화시킨 공헌이다.

19) Max Weber, op. cit., p. 5.

20) 박정원, "막스 베버의 경제사상연구 이념형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건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p. 49.

21) H. Stuart Hughes, 박성태 역, 「의식과 사회」(Consciousness and society, 1958), 삼영사, 서울, 1988, p. 264.

한편 쾰바르트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언제나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 활동에 적대적이었다고 베버의 견해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자본주의는 세속적인 것이며 이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고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쾌락에 더 많이 관심을 쏟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 증오와 비난을 사게 되어 종교적 감정이 치열해질 수록 경제적 활동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어가는 것이다.<sup>22)</sup> 이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적 직업윤리가 직접 당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잉태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행위를 자본주의 정신으로 지양케 하였다는 반박을 곧바로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토니(R. H. Tawney)<sup>23)</sup>는 베버가 자본주의의 역할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간의 광범위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의 견해는 폭넓은 지지를 받을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밖에 여러 학자들의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데, 알버트 하이머<sup>24)</sup>(Albert Hyma)는 켈빈주의자의 신앙에 있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신의 영광을 위해 자분을 축적해 나가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주로 노동 그 자체를 위하여 일하고 가능한 한에서의 자기가 선택받은 인간이라는 표식을 찾아내어 직접적으로 신의 영광을 위하여 노동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 반박하였고, 허드슨<sup>25)</sup>(W. S. Hudson)은 켈빈주의에 대한 베버의 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22) 김태현,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과 막스·베버의 경제사상”, 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29.

23)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Harcourt Brace & Co., N.Y., 1926, pp. 315-316.

24) A. Hyma, *The lif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1943, pp. 100-101.

25) W. S. Hudson, “Weber Thesis Reexamined”, *Church History* 30, 1961, p. 93.

## IV. 새로운 기독교적 경제활동 방향의 모색

### 1. 기독교적 경제관의 변화

#### 1) 기독교적 경제관의 변화추이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평등과 자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적인 봉토사상으로부터 일련의 자유주의와 사회개혁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등이 등장하는데, 공적인 조건들의 조정이 점차 정치적 권력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개신교는 변화된 상황에서 복음이 가졌던 평등적 원리들을 관철하는데 별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말하자면 17세기에 들어와서 달라진 정치적 의식과 함께 등장한 변화된 소유 및 생산관계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민중들의 궁핍화에 대항해서 정통주의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전혀 제시할 수 없었다. 여기에 기독교적 자선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경건주의(Pietismus)나 각성운동들은 초기 산업사회와 더불어 등장하는 산업 프롤레타리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과 그의 사회적 자유주의 단체들이 비로소 당시의 상황에서 기독교와 기존의 사회형식들은 일치할 수 없다는 논제를 제시했었다. 그도 역시 교회를 멀리하는 노동자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밑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를 더욱 철저화한 것은 스위스의 종교사회주의자들이었다. 물론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충돌은 19·20세기의 교회사적 사건이기도 했지만<sup>26)</sup> 종교사회주의의 등장은 이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었다.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종교사회주의 역시 19세기말 20세기초에 중산층 자본주의적 세계의 위기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찾으려는 운동이었다. 교회에 억압당하는 계층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삼고, 사회의 필요하고 멈출 수 없는 혁명에 대해 전혀 새로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그리스도교

26) E. Thurnevsen, "Sozialismus und Christentum", in: ZfZ 1, 58ff.

회의 세계이해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자들과 곤궁에 처한 자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sup>27)</sup>

1925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실천적 기독교를 위한 세계협의회>의 제1분과 위원회는 “교회와 경제적, 공업적 문제”, 특히 소유의 문제, 기업내 협동의 문제, 유아노동의 문제, 실업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스톡홀름협회의의 정신은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의회를 통하여 관철되었다. 1930년 런던협회는 “교회와 현대 경제의 형성” 문제를 다루었고, 1937년 옥스포드세계협의회는 기독교적 관점에 비추어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부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교회협의회를 준비하는 모임들의 제3분과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집중의 상황과 현대 사회에 대한 기술의 지배 문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사회들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집단(Kollektiv)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의 사회윤리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최초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세계적 관점에서의 책임사회론”으로 수렴되었고, 1954년 에반스톤 제2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나타나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사회적 구조변화, 국민국가 형성문제, 도시화와 공업화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5년 나이로비 제5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는 남북문제가 예리하게 인식되는 가운데 “참여적이고 정의롭고 지탱 가능한” 사회에 대한 에큐메니칼 비전이 제시되었으며, 1983년 밴쿠버 제6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는 “정의, 평화, 창조보전”(JPIC=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을 교회의 과제로 천명하고, 이를 세계교회들의 협의과정(Conciliar Process)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1990년 3월의 서울 JPIC 대회는 밴쿠버 제6차 총회 이후의 협의과정을 정리하고 캔버라 제7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이후의 교회의 사회윤리적 과제들을 경제윤리 및 환경윤

27) H. D. Wendland, “Der religiöse Sozialismus bei Paul Tillich”, in: *Die Kirche in der revolutionären Gesellschaft*, 1967, S. 208.

리의 형성, 세속 이데올로기들과의 대화로 발전시키는 매개고리였다고 볼 수 있다.

## 2) 사회주의 몰락과 최근 기독교 경제관의 변화

오늘날 기독교 신학적 경제윤리는 동구와 러시아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고르게 유지하는 가치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동구와 구소련 지역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결합된 시장지향적 경제체제가 실현되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본과 노동을 운용하는 데 엄청난 비효율성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침체되었고 또한 중앙 정부의 계획은 생산 명령의 형태로 하달되어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소수의 손에 독점되어 있었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일적인 체제 통합을 앞세운 나머지 시민사회의 영역은 위축되거나 억압되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정치적 의사결정과 생산 및 분배 제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민주권이 아래로부터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중앙에서의 생산명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는 현실 사회주의의 발전과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자본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대답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실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들은 의연히 존재한다. 그런 모순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부의 불평등과 빈부격차, 자본 극대화를 위한 인간의 지배, 성차별에 따른 ‘빈곤의 여성화’<sup>28)</sup>,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 땅과 토지의 희소성에 따른 땅과 토지에 대

28) 빈곤의 여성화(Feminisation of the Poverty)는 대체로 성차별에 근거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저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가사 노동의 환금 불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여성 노동의 무화 혹은 부차화를 강요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노동통제에 관철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 자본의 지배, 독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산업 사회의 퇴조와 정보화 사회의 등장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 서비스 산업화되고 네트워크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통합이 확대되어 지구촌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생산 요소와 경제 주체의 국가 간의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태계와 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으로 작용하여 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들은 기독교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 사회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2 새로운 기독교적 경제활동 방향의 모색

### 1) 창조목적에 맞는 경제활동

하나님이 인간을 흠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하는 데 창조의 목적이 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창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창세기 1장 26~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후 인간에게 준 임무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즉 자연을 통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자연에 대한 통치 사명이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첫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두번째 특징은 창조성이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창조성이 있다. 그러나 이 창조성이란 물론 무(無)에서의 창조는 아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서 인간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성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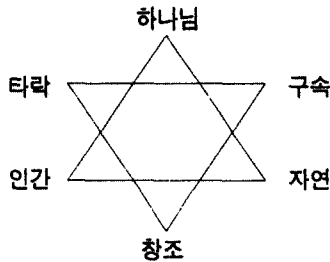
기독교 경제활동 주체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활동방향으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창조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먼저 들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최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개인의 성장을 돕고 자생력 있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2) 구속을 통한 관계회복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 자신과 자연계의 타락을 가져왔다. 환경과 자연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의 구속으로 본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1> 하나님, 인간, 자연의 관계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창세기 1장). 그것은 노동을 통하여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의 물질대사를 이룩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펼쳐나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으로 지음을 받았던 모든 피조물이 고통과 탄식 아래 놓이게 되는 역사 과정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성서의 일관된 증언이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은, 권력과 물질을 둘러싸고 형성된 “역사적으로 구체적인”<sup>29)</sup> 관계들의 소산이다. 그 관계들은 인간을 노예화하고 노동을 비참한 것으로 만들고 피조물인 자연의 생태학적인 유기적 관계를 파괴했다. 성서는 이 관계들과 그것의 역사 과정을 총괄하여 ‘죄’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첫번째 창조물을 포메이션(formation)이라 하고, 죄로 인한 이 세상의 왜곡과 형태의 변화를 디포메이션(deformation),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또는 회복을 리포메이션(reformation)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형태를 주시고 만드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형태가 바뀐 그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형상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왜곡되었지만 이 세계가 완전히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거나 뒤바뀐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하나님, 인간, 자연이라는 삼각 관계와 그 관계의 왜곡으로 인한 타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인간, 자연의 본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속을 통한 관계 회복으로 경제활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3) 주체별로 기독교적 경제윤리의 실천

경제의 기본 주체인 국가(정부), 소비자(가계), 생산자(기업)들이 각기 경제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윤리는 경제에서의 객관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통일시키려는 노력이다. 경제법칙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자본의 가치법칙, 이윤극대화, 경제적 효율성 등등의 개념은 사람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객관성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듯이 생각되고,

---

29) “역사적으로 구체적인”(geschichtlich konkrete)이라는 표현은 본래 칼 맑스가 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로를 관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경제윤리는 경제에서 객관적인 것을 다루는 방법을 개발하고 경제에서 인간적인 것의 내용과 형식을 밝히고 이들을 서로 매개시키고 연관시키는 관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의 기초 단위인 소비자, 즉 가게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는 데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가게는 경제활동에서 생산 측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실제 일을 하게 되며 소비 측면에서 다양한 소비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기독교인은 소득의 십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sup>30)</sup>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소득의 원천을 깨끗이
  - 부정한 방법이나, 뇌물, 협박, 강압, 폭리를 배제
  - 투기, 불로소득 등에 의한 소득의 원천을 차단
- 소득의 운용을 정직하게
  - 이미 획득한 소득의 운영과 투자, 저축을 성경적으로 시행
  -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소득(자산, 자본)의 투자 필요
- 소득의 소비를 정당하게
  - 소득을 소비할 때는 먼저 십일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후 소비
  - 소비는 사치와 향락을 줄이고 검소, 절제의 생활화
  -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으로서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소비생활

생산자인 기업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입각하여 최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이윤을 창출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하며 발전을 돕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경제활동의 세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

30) 유해신, “성경적 소비생활”, 『행하는 자라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 1992, pp. 97~100.

하면 다음 사안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생산의 건설화
  - 재화나 서비스 또는 가치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인간, 자연의 관계가 창조목적에 일치시키는 것을 생산.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의 삶을 향상, 증진시키며, 자연(환경 등)을 회복하고 본래화시키는 재화, 서비스, 가치를 생산(창출)해야 함.
- 경영의 합리화
  -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기대를 실현시켜 주어야 함
- 고객의 만족 증대
  - 기업의 내부고객, 외부고객의 만족의 극대화를 지향
- 이윤의 적정화
  - 이윤극대화를 버리고 적정이윤을 장기적으로 추구
  - 가격을 통해 기독교적 사랑과 복지의 확대 추구

경제활동의 다른 주체로서 국가(정부)는 경제활동 주체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경제정책이 조성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의 시행으로 기독교적 경제윤리를 확대하는 데 주요 기능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요 사안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경제정책 운영
- 동시에 국민의 복지와 인권이 확대되는 정책의 시행
- 기회의 균등과 평등이 확대되는 정책의 시행
- 인간답게 살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규칙을 제정, 시행
- 경제정의 실현과 이에 역행하는 활동에 대해 규제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처럼 정당하고 형평에 맞는 조세의 징수
-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시행

#### 4) 인간성의 고양과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은 1차적으로 인간의 활동으로서 인간성을 고양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야 하며,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되고, 삶의 질을 왜곡·저하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인간적인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상태에서부터 출발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일정한 철학적, 신학적 세계관에서 인간적인 것을 도출하여 경제윤리적 행위를 제시할 수도 있다.

리히(A. Rich)는 예수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신약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의 내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곧 “소망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설정하고<sup>31)</sup>, 거기서 도출되는 인간적인 것의 기준을 피조성의 기준, 비판적 거리의 기준, 상관적 수용의 기준, 합리성의 기준, 이웃관계의 기준, 피조물 관계의 기준, 참여의 기준으로 설명하였으며,<sup>32)</sup> 이 기준에 따라 경제윤리의 공리들을 밝혔다.

경제활동을 통해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인간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극복하고 인간성을 고양하고 인간다운 삶을 확장시키도록 경제의 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 소외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노동이 굴절되지 않고 평가되며, 능력에 따라 고르게 노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V. 맺는말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오랜 역사와 인류역사에서 영향을 미쳐 온 경

31)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der theologischen perspektive*, Gutersloh, 1984, pp. 125-127.

32) 위의 책, pp. 173-200: A. Rich, “Sozialethische Kriterien und Maximen humaner Gesellschaftsgestaltung”, in: *Sozialismus und Wirtschaftsordnung*, hrsg. von S. Katterle / A. Rich, Gutersloh, 1980, pp. 15-20.

제와 직업 또는 노동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연계시켜야 한다.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시대와 그 장소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하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기독교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기초 단위로써 가게는 먼저 분배와 소비 측면에서 정당하고 절제있게 활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로 판단되는 기업들에게는 적정 이윤을 통해 계속 기업으로 발전하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가는 여러 경제활동 주체들 간의 갈등을 통제하고 전략의 방향이 발전적이고 상향되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지도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일에 대해 가장 긍정적 입장을 취하며 직업의 귀천을 부인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일과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쌓여 나간다면, 그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다스리신다(요 5:17). 예수님은 땅에서는 목수였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으며, 사도 바울도 육체노동을 쉬지 않았다(살전 4:12, 살후 3:10).

## 참고문헌

김태현,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과 막스·베버의 경제사상”, 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1988.

박정원, “막스·베버의 경제사상연구 - 이념형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건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1980.

- 유해신, “성경적 소비생활”, 「행하야 자라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 1922.
- 홍치모,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서울, 1977.
- 최종식, 「서양경제사론」, 서문당, 1986.
- Georgia Harkness, 김재준 역, 「기독교 윤리학」,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962.
- R. Friedental, 김형석 역, 「마르틴 루터의 생애」, 삼성미술 문화재단, 서울, 1979.
- Max Webber, 심희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을유교보, 서울, 1986.
- Alber Hyma, *The lif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1943.
- Henry R. Van Til,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 영음사, 서울, 1972.
- Didache, I, 5f ; 4,5-6 ; Pseudoklementinen II, 29 ; Barnabas 19, p. 8f; Hermas, 6, 7 ; Polikarp 4, 1.
- Gregor von Naxianx, MPG 35.
- Ambrosius, PL, 16, 67.
- 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37.
- Thomas von Aquinas, *Summa Theologiae*, II/2, 66 ; *Handbuch der Christlichen Ethik*, Bd. 2.
- F. Russel. A. Concise, 이민호 역, 「독일소사」(*A concise History of Germany*), 삼성미술문화재단, 서울, 1981.
-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II, trans. Olive wyon, George Allen & Unwm ltd., London, 1931m.
- G. S. M. Walkes, “Calvin and the churc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XVI, 1963,
- W. F. Graham, “The constructive Revelution”, *John calvin and His Social-economic Impact*, John Knox Press, Richmond: Virginia, 1971.

- Max Weber, 조기준 역, 「사회경제사」(*Wirtschaftsgeschichte*), 삼성출판사, 서울.
- H. Stuart Hughes, 박성태 역, 「의식과 사회」(*Consciousness and society*, 1958), 삼영사, 서울, 1988.
- E. Thurnevsen, "Sozialismus und Christentum", in : *ZdZ* 1.
- H. D. Wendiand, "Der religiöse Sozialismus bei Paul Tillich" in *Die Kirche in der revolutionären Gesellschaft*, 1967.
- Arthur Rich, *Wirtschaftsethik I: Grundlagen in der theologischen Perspektive*, Gutersloh, 1984.
- A. Rich, "Sozialethische Kriterien und Maximen humaner Gesellschaftsgestaltung", in : *Sozialismus und Wirtschaftsordnung*, hrsg. von S. Katterle/ A. Rich, Gutersloh, 1980.
- R. H.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Harcourt Brace & Co, NY, 1926,
- W. S. Hudson, "Weber Thesis Reexamined", *Church History* 30, 1961.



■ 김홍섭 ■

1955년 출생, 상군관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상군관대 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해운산업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 역임, 현재 인천 기운실 실행위원, 인천 경실련 집행위원, 해운항만청 민자유치 평가위원, 인천시립전문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주요 저서로 「항만노무론」, 「유통상식」, 「상품지식」, 역서는 「예수의 오메가 리더쉽」 외 다수 논문.